



## 신문에서 찾은 간 상식

### ▶ 커피, 알코올성 간경변 예방효과

커피가 알코올의 독소를 없애 음주로 인한 간경변을 예방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고 AP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하루 4잔의 커피를 마시면 간경변의 위험을 80퍼센트까지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의료보험 등에 가입한 미 캘리포니아 북부지역 주민 12만 5천 명 이상을 상대로 한 평균 14년의 추적결과를 바탕으로 이뤄졌다.

종합의료기관인 미 오�클랜드 카이저 퍼머넌트의 아더 클라츠키 박사는 이런 효과가 커피의 카페인으로부터 나오지는 확실치 않으나 커피보다 카페인 양이 적은 차를 마시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연관성을 무시할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06. 6. 14 최원석 기자

### ▶ 부적격 혈액 수혈 8명 'B형 간염'

질병관리본부는 1999년 4월 1일 ~ 2004년 4월 9일 대한적십자사에서 출고된 부적격 혈액을 수혈 받은 사람 가운데 사망자·주소불명자 등을 제외한 4,237명의 혈액을 채취, 8명이 B형 간염에 감염됐다고 19일 밝혔다. 부적격 혈액은 헌혈 당시 (간염)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왔으나 과거 1번 이상 양성인 나온 전력이 있는 사람의 혈액을 말한다.

이번 조사에서 B형 간염 감염자 7명, C형 감염자 2명도 추가로 나왔으나 수혈로 인한 감염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향신문 2006. 6. 19 황인찬 기자

### ▶ '암 세포 축진' 단백질 첫 발견

(생명공학연구원 임동수·정초록 박사팀 논문)

국내 연구진이 암 세포의 증식, 전이를 촉진하는 새로운 단백질을 발견했다. 이에 따라 이 단백질을 억제하는 표적항암제 등 새로운 암 치료제 개발이 기대된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임동수·정초록 박사 연구팀은 'E2-EPF 유비퀴틴 캐리어' 단백질(UCP)이 암 세포의 증식과 전이를 촉진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임 박사팀의 연구논문은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 메디신' 인터넷판 3일자에 게재됐다.

연구팀은 생쥐 종양모델을 이용해 간암 발생과 관련 있는 UCP가 암 억제 단백질인 VHL의 분해를 유도, 암 조직 주변에 혈관을 만들어 암 세포 증식에 필수적인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함으로써 암을 증식시킨다는 원리를 규명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UCP가 간암을 비롯해 대장암, 유방암 등 원발성 암뿐 아니라 전이 암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 박사는 "이번 연구는 UCP가 광범위한 인체 암의 증식과 전이에 관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UCP의 기능을 억제하는 항암 약물과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화일보 2006. 7. 3 이진우 기자

### ▶ 획기적인 간염치료제 국내서 개발할까

세계 약 450억 달러의 간염치료제 시장을 주도할 활성화 개념의 치료제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본격 개발된다.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김상건 교수팀은 천연물에서 기원한 성분으로 인체 안전성이 확립된 새로운 개념의 간질환 치료 효능 물질을 최초로 규명했다고 5일 밝혔다.

LQ로 명명된 이 활성물질은 천연 생약에서 추출하여 안전성이 우수한 급만성 간염치료제로 연구결과 경화성 간조직의 세포재생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활성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는 약물학 분야 국제 학술지(CBI) 최신호에 게재되었다.

김 교수팀은 이와 관련 발명특허 등록을 완료했으며 국내 대원제약에 관련 기술을 이전, '급만성 간염치료'에 효능이 있는 천연물 바이오 신약을 산업화할 계획이다.

아직까지 간염에 사용되는 약물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항바이러스 치료제인 라미부딘은 일부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 유효하나 내성 발생의 단점을 갖고 있으며, 다른 약물인 인터페론은 감염기간이 짧고 경변이완이 없는 정상면역능 환자에게만 적용할 수 있다. 현재 HCV(B형간염 바이러스) 감염증을 제어하는 치료제도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김 교수팀이 개발한 바이오 신약이 대원제약을 통해 산업화될 경우 급·만성 간염 등 간질환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교수는 "간염치료제 시장의 국내 매출액은 연간 약 6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적으로는 약 450억 달러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밝히고 "새로운 간염치료제는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서도 경쟁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약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내 간질환 사망자는 10만 명당 1만1천 명에 이르며, 이 중 40~50대 연령의 사망자가 6천 명에 달한다. 우리나라 중장년 연구에서 간질환으로 인한 사망은 질병 사망원인 중 2위에 이른다.

한편 대원제약은 김 교수팀의 간염 치료용 바이오 신약의 산업화 추진 외에도 바이오벤처기업 포휴먼텍과도 단백질 전달체(PTD) 기술을 활용한 천식 치료 신약 'FHT-CT4' 개발에 관한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2006. 7. 5 이기수 전문기자